

그러면 이제 이 원리속에서 예수의 비유를 해석해 보자.

가장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의 경우 우리는 그의 회개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맥락(비유학에서 그것을 삶의 정황이라고 부른다) 은 눅 15 : 1 ~ 2 절에 나온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교제한다는 것을 원망한데 대해 변증한 것이 탕자의 비유이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에 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탕자가 비유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위 탕자의 비유는 크게 두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24절 앞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고 그 뒷 부분에서는 형의 잘못을 통하여 종교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데 있다. 이 처럼 본문을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맥락속에서 해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다음은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마 11 : 16~19)를 예로 들어보자. 이 비유의 삶의 정황은 끝 부분에 나온다.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감각없는 현 시대에 대한 비판의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맥락속에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비유를 말씀한 근본 동기는 예수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방한 것에 대해 답변한 변증이다. 당시 아이들은 길 거리에서 결혼식 놀이와 (17상) 장례식 놀이 (17하)를 곧 잘 했는데 이때 여기에 합세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남의 흉을 깨는 자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 저들을 비판한 것이다. 즉 바리새인들의 트집이 마치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이 합세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 비유의 초점은 '지혜는 그 행한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적용에 있다. 즉 지혜는 깨닫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 이미 마지막이 온것을 왜 모르느냐 하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성경공부지도자의 자질과 역할

하 용 조

(두란노서원 · 목사)

요즈음 미국의 성장하는교회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교회마다 교인 양육과 함께 지도자 훈련을 세미나 형식으로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와 연구의 결과가 교회마다 자기들의 개성에 맞게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공부에 있어서 성경공부 지도자 역할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성경공부 교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 성경공부 지도자론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선생된 자에게 주는 성경의 말씀의 경고를 먼저 찾아 보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야고보서 3장 1~2 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였다. 우리 지도자들은 말을 안할 수가 없다. 어차피 말을 해야하고 말을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말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고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로마서 2장 17~23절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셨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모든 사람도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을 하여, 의인은 한사람도 없고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우리에게 깊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말씀 선포자가 있고, 그렇게 많은 영적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적 수준은 그만큼 좋아지지 않고 있다. 왜 이렇는가?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의 영적 수준은 자라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나, 개인의 도덕적 수준에 있어서나, 사회의 도덕적 수준에 있어서나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에게만 핑계를 돌릴 수는 없다.

왜 이렇는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성경공부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교회의 모임이 부족해서 그런가? 무엇때문에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런 현상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성경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는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찌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

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 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와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것이 아닌 즉 어찌 허탄한 목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것이 아니냐?”고 되어 있다.

놀라운 말씀인것이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성경말씀이라’고 하며 선포하며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하신다. 나는 결코 그렇게 말한적이 없다고 하신다.

로버트 솔러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생명의 전화 창설자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분이 최근에 소련을 다녀와서 선교 상황을 보고하게 되었다. 그때 로버트 솔러 목사는 자기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생명의 전화를 창설한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크리스탈 교회를 만들었다고 간증을 하였지만 이때 생명의 전화 창설자는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당신에게 준일도 없고 이 교회에 별관심도 없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분명히 하였다. 즉, 그는 자신이 로버트 솔러 목사에게 이렇게 쇼(Show) 하는 교회를 하라는 아이디어를 준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말이 아니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없겠느냐? 물어 보아야 한다.

사실 이런 경고들은 우리가 좀더 깊이, 그리고 무게있게 들어 보아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한국 교회서는 교파를 초월하는 고무적인 놀라운 경향과 운동들이 싹트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들은 노회다, 총회다, 부흥회다, 선언문이라는 등의 언어에 익숙해 왔고 또 이것들이 교회활동의 거의 전부 인것으로 알아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회며, 큰 집회와 같은 것으로 한국교회의 성장

을 묘사하려고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 요즘에는 방향이 인격적 성숙에 바탕을 둔 성경공부 운동과 부흥회 대신에 사경회가, 또한 그룹 성경공부(Group Bible Study)와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학생운동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제자훈련 프로그램(Program)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제자화 프로그램이 한국에 와서는 학생운동의 전유물 처럼 되어 교회에 잘 소개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원래 이 제자화 프로그램은 학생운동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회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섬겨지는 SUNDAY-SCHOOL(주일학교)의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일학교라고 하면 유년주일학교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인 주일학교는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성인들이 성경공부를 맹렬하게 해나가는 그런곳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다음에 영성훈련이라는 새로운 경향성과 이런 영적 분위기에서 생겨나는 세계 선교에로의 강한 지향성 이다.

우리가 성경공부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새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위의 운동들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왔던 성경공부와는 감각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르치던 그런 유형(Style)이 아니다. 본문 연구나 언어연구와, 배경연구와 같은 이런 연구는 기초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성경공부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공부라 하면 늘 그렇게 하는 것인줄만 알아왔고 성경연구는 늘 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과 같이 딱딱한것 만으로 생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말하는 성경공부는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접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말씀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듣는 이런 유형의 성경공부인 것이다. 이것은 주제별성경공부처럼 내 생각을 위해서 성경을 활용

하는 식의 성경공부가 아니다.

즉, 목상과 연결되는 성경공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성경공부가 지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제별 성경공부는 아무리 좋은 주제별 성경공부 교재라도 그 위험성을 피할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성경공부의 거의 대부분이 주제별 성경공부를 위한 것들이다. 또한 우리나라 목회자들 대부분이 주제별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인 이 성경공부는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교가 강해설교가 아니면 이 성경공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강해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자꾸 본문중심의 성경공부를 강조하게 되고 주제별로 설교하는 목회자는 주제별 성경공부를 자꾸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한 Style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때 우리는 대중을 상대로 전체적으로 성경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이 성경공부는 개인의 인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소그룹 운동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제자훈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과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전달의 공부 방법이다.

내가 단지 강의 준비를 해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양육이라는 개념에서 도와주는 성경공부 이다. 이 성경공부의 특징은 해석과 더불어 적용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적용에 구체적인 것으로 적용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겸손히 말씀앞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내포한 그런 성경공부 이다. 그래서 이 성경공부는 언제나 배우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가르치는 자의 문제가 된다. 성경공부는 배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자의 문제이다.

필자는 작년 6월에 귀국을 해서 10월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직

교회 이름도 없고 아직 교회를 열지도 않고 있다. 지금은 목회하기 위하여 지도와 훈련을 5개월째 계속하고 있으며, 23가정이 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일을 한가지 체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목사가 설교한 것을 교인들이 적용하기 시작하면 제일 놀라고 당황하는 것은 바로 목사 자신이라는 것이다.

교인들이 아니라 목사 자신이 놀라고 또한 무서워 한다. 내가 설교한 그대로 교인들이 적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가지 많은 말을 자꾸 하지만 말을 안들었을 때 말을 더 하듯이 적용을 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 겁이 나니까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지므로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된다. 여러가지 잡다한 지식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적용을 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 한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공부의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성경공부는 살아 움직이는 공부이며, 이런 성경공부에서는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모임의 구성원들이 나날이 달라져 간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제자훈련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토착화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가 그것을 모델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몇 교회가 겨우 그것을 시도하여서 이제 약 5년 혹은 6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에는 대개 두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어떤 프로그램과 교재에 따른 제자훈련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재 한국에서 많이 목격하는 형태의 제자 훈련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제자화 훈련은 그 프로그램에 얽매어 하지 않고 예수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 자체 안에다가 그 제자화 훈련 프로그램을 두고 삶 전체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주로 영국이나 스위스의 「쉐퍼」의 「라브리」와 같은 그런 형태의 제자 운동이다. 이것은 아직 우리 한국에서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교재에 의한 한계를 이것이 해결

해 주어야만 한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의 제자 훈련프로그램이 한국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제자 훈련의 결과로 말씀에 기초한 영성운동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영성운동이 생기기 시작하면 목회자들의 영성수준이 아니라 교인들의 전반적인 영성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경건 훈련, 천복훈련, 성경공부훈련 등 내면적 영성훈련과 교제나 봉사동사 회참여와 같은 외면적 영성훈련과 예배라든지 성만찬 이라든지 하는 이런 공동체적 영성훈련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 변화라고 하는 삶의 변화에 기초한 성경공부나 제자훈련 그리고 영성훈련의 이런 기초가 잘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세계 선교(world mission)이다.

소위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운동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세계 선교운동은 열매를 맺기 어렵다.

데니스 레인 목사와 5년동안 이 강해설교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동안은 선교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아무리 지금 선교 이야기를 해보아야 헌신자들은 조금 생길 수 있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설령 선교헌금을 해도 선교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헌금을 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성경강해를 바르게 가르치고, 제자화 훈련을 바로 하고 성경공부를 바르게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선교는 자연적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영성이 높아지면 나아갈 길은 선교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지는 세계 선교운동이나 선교사 파송이나 선교훈련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한국적 상황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은 거의가 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 또한 보내는 교회도 교회대로 지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까지의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인격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성경공부와 이 성경공부의 핵심인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문제를 두가지 제시하고 싶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구하고 적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과 성경만 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문제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성경을 들고만 다니는 그리스도인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실로 엄청 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은 당연히 우리가 뿌린 씨에 대한 열매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많이 문제시 되는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가 그렇다. 이것은 성경공부라는 이곳에서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성경공부를 하려고 하면 당장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이다.

본인과 같이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한 교회에서는, 아예 프로그램을 한 10년간 연구한 다음에 전부 검토를 하고 그 프로그램을 완전한 계획을 만들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이상과 비전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에서 시작하려고 한다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말쟁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의 김동명 목사(LA 한인침례교회)가 사무하는 한 교회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 다니던 한 젊은 형제가 탈보트 신학교에 입학해서 그 형제가 거기에 가서 3년동안 열심히 제자화 훈련을 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결국 그 형제는 그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다. 좋은 것을 했는데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김동명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 하여서 목회형태를 바꾸기 시작하여 아주 철저하게 일대일 양육과 제자화 훈련을 나이 육십이 넘은 목사가 적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한 사람이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장로와 목사간에 당장 장애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왜 이런 관계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을 업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로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지만 장로가, 성경공부를 가르치지 않는다. 장로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영성을 가지고 적용하며 교인들의 영적인 문제를 상담해주고 관리해주는 일어가 아니라 재정관리와 행정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곳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또 주일날마다 회의가 있으므로 장로들은 회의하는데 익숙하며 행정하는데만 익숙했지 영적인 문제에 무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주일날 목사로 부터 은혜로운 말씀을 받았다고해도 예배 끝나고 회의가 있어서 그 은혜를 다 쏟아 버리고 만다.

언제나 회의에서 기분은 씩씩하게 된다. 매주일 성경공부훈련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공부만 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훈련시켜 놓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회의를 안할 수 없지만 그것은 필요 악일 뿐이다. 또한 교회에서 제법 유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인 다기능(一人多機能)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성가대 하다가, 교사하다가, 청년회 갔다가, 여기 저기 일하다가 바빠져서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성장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날 아주 바쁘게 된다. 그래서 주일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독상할 시간이 없다. 반사들도 성경을 늘 가르치기만 하지 공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르칠 때에도 주일날 아침에 빨리 한번 읽고 가서 가르친다. 거기에서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 날수 있겠는가? 최근에 와서 성가대에 대하여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다.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반주자, 지휘자들, 독창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음악은 멋있는지 몰라도 항상 성가대는 문제와 지저분한 육신의 이야기가 나올뿐이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것

때문이다. 십일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모임에도 빠지지 않지만 영성이 없다.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을 받는 기간인 9개월 동안은 절대 봉사하지 말라고 하며 철저히 성경공부를 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한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거나, 십일조를 한다거나, 성주주일을 하는것으로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안에는 성경보다, 성경공부보다 더 높은 가치관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다.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보다 더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가 중요하다지만 그것은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뿐이다. 그것도 매주일 강해설교를 해서 사도행전을 한 일년정도 하든지 하는식으로 하면 또 모르지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식으로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들으면 다 알것 같은데 정작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본문해석이 제 마음대로 이다.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것을 해석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년에 하루도 빠지지않고 출석하는 교인이 25분씩 듣는다면 이것은 일주일간 수련회 하는것과 시간의 양이 같게 된다. 그래서 일주일 수양회를 가지는 것과 일년 교회다니는 것과 같다. 이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행사이고 의식에 치우쳐있다. 이 의식과 행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를 제기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경우이다.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처럼 변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진리에 대하여 굳게 서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스럽게 편견이 심하고 독재적이고 열심이 있는 반면에 변덕이 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활한 사람도 없지 않다.

우리주위에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덜된 사람이 있다. 비합리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한다. 이 사람은 성경공부를 안하는것이 아니다. 온갖 교재로 공부를 하고 성경공부는 험한 사람이지만 인간이 덜된 사람인 것이다. 요즈음 나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을 보면 고민이 되기도 한다. 저렇게 믿는것이 예수님을 닮는것이 아닌데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자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공인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뭔가 아닌것이 있다.

영국교회에서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것은 그 사람들은 철야기도도 하지않고 금식기도도 안하지만 아주 매사에 신앙이 좋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악을 써야 잘 믿는것인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도 잘 믿고 있다. 그래서 참 충격을 받았다.

성경공부 지도자의 자질

오늘날 성경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하지 않는것은 왜 그럴까?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성경공부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도자 밑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인격적 성숙이란 측면에서 성경공부 지도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며, 또 이런 인격에 바탕을 둔 성경공부가 어떤 것인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경공부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공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성경공부 지도자는 교파나, 교리나, 신학이나, 어떤 파벌보다도 성경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속해 있는 교파와 교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때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절대적인것은 아니다.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출발한 것으로서 그 동기와 시작은 절대적으로 선했을 줄 모르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할 수도 있으므로 언제나 성경의 권위를 궁극적으로 어떤 교파나, 신학이나, 파벌이나, 이즘(ism)보다 제일 높이 둘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의 한 모델을 본 적이 있다. 지금 L. A. 지역에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David Harking 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명이 출석하는 침례교계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교회에서 성경적이 아닌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그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고,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교파의 일이지 성경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사표를 쓰고 나온 후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은 약 삼천명이 모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거기에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목사의 태도에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그 면에서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았다.

또 성경공부에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번째는, 성경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권위, 계시, 영감의 문제등에 분명한 이론이 정립 되어야 한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고 만다. 문서설이나, 자유주의적인 성경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일년동안 영국에서 존 스타트 목사 밑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존 스타트 목사는 그의 강의의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이것만을 그가 지도할 때는 언제나 자기 학생들에게 몇 주일간에 걸쳐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권위, 영감, 해석 이런 문제들만을 잘 정리하여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한두번 정도 가르치면 쉽게 이해 하겠는데 아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원리만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비로소 그가 저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기초가 분명하

게 되면 아무리 어떤 것이 부딪쳐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 성경공부에 대한 확신은 Q. T. 에 대한 확신과 Group Bible Study 에 대한 확신과 적용과 Sharing 에 대한 확신과도 연결 된다. 그리고 성경공부 지도자는 처음에 intern 식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성경공부 지도자 밑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가? 하는 것을 목격해야 하며 자기가 실제로 공부하며 그 변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가르칠 때 남을 변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잠깐 포기 하고 참 변화가 있는 그런 성경공부 모임에 가서 배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식 가지고 성경공부는 안된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와 같은 모임에 들어가서 회원이 되어서 배우는 것이다.

그 한 예가 여의도 침례교회의 한기만 목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동원 목사의 말에 의하면, 여의도 침례교회를 하기전에는 목회를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 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분이 깨달음이 있어서 목회를 일단 그만두고 내비게이토의 학생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목사 뺏지 다 떼고 채면불구하고 제자훈련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몸에 익히고 난 다음에 목회에 적용해서 여의도 침례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성경공부 잘하는 교회로 변하고 달았고. 여의도에서 순복음 중앙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고 한다.

실제로 가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비록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그 평신도 밑에 가서 배워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성경공부지도자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성경공부를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 시키려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런 의지가 생길 때까지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연기 하는 것도 좋다. 비록 만사가 급하니까 좀 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기에게 말씀이 찾아와도 적용할 용의

가 없으면서, 나는 적용 못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내가 전하기만 하면 저 사람이 적용해서 살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내가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상대방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장 부터 지금 까지 14장 공부를 끝냈었다. 1장 공부를 할 때 부터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주지한 말이 바로 13장 공부를 할때까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즉, 사도행전을 따라 가자고 하는 것이 그 공부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13장이 될때까지 헌금이 얼마 나오고 교인이 얼마가 모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10장 까지 왔을 때, 13장도 곧 다가오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기가 어려울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한정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O. M. F. 선교사 였다. O. M. F. 는 선교현지에서 선교헌금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 하고 있었다. 그는 싱가포르 가야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중 남서울 교회에서 300불이 결정되었지만 그것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알고 반가워서 자청하여 우리가 도와주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보내어 준 사람인줄 알고 모든 교회 교인들이 기쁨으로 월 300불씩 이 사람을 돕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13장 설교가 신이 날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연세대학교 다니는 한 형제가 '목사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가야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안가면 저라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것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선교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매우 당황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매우 침울했으며 나 자신이 선교사로 가야할지 모르겠다고도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와 더불어 우리 두사람부터 먼저 선교하러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 보았다. 왜냐하면 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람만 되어서는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만큼 적용은 무서운 것이며 엄청난 것이다. 적어도 성경공부 지도자는 적용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작은것 부터 구체적으로, 적용은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그 사건에 관계가 없이 나는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때, 그 명령은 순종할만한 내용이 못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했던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특별히 성경공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할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몽든, 순종하기로 백분의 일만 결심을 해도 교회는 소용돌이치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백만분의 일도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상태 그 모양이다.

왜 이런가? 아주 변화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 그러므로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말씀으로 선포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다.

세째로, 성경공부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세미나를 같이하던 데니스 목사는 4월달 부터 안식년에 들어가게 된다. 그의 안식년도 1년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안식년은 왜

1년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던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자기는 1년 동안의 시간을 쓸 필요가 없고 4개월이면 족하다고 했다. 이번에 그는 그 짧은 안식년 동안에도 한주일을 택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들에게 또 강해설교를 가르쳤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영국에 가면 어디에 가서 살것이나고 물었더니 그는 자기집이 없기 때문에 어디가서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 친구 집이 두곳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은퇴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가 하는말이, 지금도 살려주셨는데 그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설교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단순한 설교의 기술을 말하고 있는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에게는 단순한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다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문제였다. 왜, 오늘날 우리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 감동을 받지 못하는가? 삶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다면 포기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포기한다는 말인가? 우선은 재물, 권력, 명예를 포기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권력을 갖고 있는 목사에게 존경하기가 힘들다. 그것을 잘 활용하기 보다는 악용하기 쉽기 때문에 어려운 위치이다. 아주 단순한 삶을 사는것, 이것이 없으면 딴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물론 소유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돈많은 사람에게 감동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부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사람들이 머리를숙일수는 있지만 결코 감동하지는 않는다.

권력을 쥔 사람에게 감동하는 법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존경 못 받는줄 착각하고 있다. 즉, 총회장이 못되어서, 대통령이 못되어서, 부자가 못되어서 존경을 못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단지 변화된 삶이 없기 때문이다. 이 변화된 삶인, 포기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한다.

외국에서 1년정도 공부를 할때 한 젊은이를 만난적이 있는데 그는 20세때 웨필드 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획득한 사람이었고 3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인도에 갔다가온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1년 동안을 살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가 새물건을 사는것을 본적이 없었다. 그 사람은 안사고 안갖는다고 했다. 옷은 헌옷입고, 편지쓸일이 있으면 은 편지 봉투를 다시 잘라서 거기 에다 쓰곤 했다. 어떻게 보면 궁상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에게 존경이 가고 머리가 수그러진다. 그 사람은 나에게 삶의 영향력과 감화를 많이 끼쳤다.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것은 내가 신학 3년에서 받은수 없었던 그런 감화였다.

존 스타트 목사댁에 아내와 함께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던 적이 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레스 입고 정장을 하고 갔다. 그런데 저녁 식사에 식탁에 차린것은 단지 집에서 만든 맥도날드와 진짜도 아닌 물에 타서 먹는 분말로된 주스 뿐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것이였다. 굉장한 잔치인줄 알았는데 보잘것 없는 음식이고, 아주 간소한 평범한 것이였다. 어떤때 우리 학생들이 식사시간에 그의집에 함께 가게되면 식사후 육십이 넘는 노인이 설것이통에 제일 먼저가서 설것이를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분의 집에가면 한시간씩 감자를 꺾어야 한다.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대접만 받아서 제일 못하는 것이 목사인 나였다. 그런데 거기서는 설교 지원자는 손을 굽는 제일 어려운 일을 하였고, 전화기 받는 일도, 회장의 부인도, 목사의 부인도, 교수의 부인도, 예외없이 해야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공동체의 삶이 형성되고 큰 인격적 변화가 올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우리가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 적게 가르쳐서, 내용이 약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삶이 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꾸 화려한 성경공부, 좀더 멋있는 성경공부, 좀더 좋은 자료를 계속 찾고 있다.

네째, 이러한 성경공부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과 열린마음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은혜받고 성경공부 하면 제일 쉬운것이 사랑이 아니라 교만해 지는 일이다. 자기는 배웠고 은혜를 받았고 성경공부를 좀 잘알고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굴 빛이 달라지고 또 교만해 진다. 그래서 대개 제자화 훈련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소 교만하다. 특별히 일대일 훈련을 받은 사람은 교만하기 쉽다. 자기는 남달리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는 착각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 처럼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을 섬길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욕을 먹게된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대학생 단체들도 늘 욕을 먹는다. 자기들끼리만 늘 무엇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가면 은혜가 없다고 한다. 교회안에서도 성경공부를 좀 한사람은 교만하고 비판하기 쉽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공부 지도자는 한사람의 귀중함과 계산상의 확실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리더십을 완전히 이해하고 배가의 원리를 확신하는 사람이다. 99%의 헌신된자100사람 보다도 100% 헌신된 열사람이 더 귀한줄 알고 훈련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교회안에서 성경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동요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올 소울스 교회의 예배드리는 방법은 아주 독특하다. 그 교회의 목회자들은 설교를 3개월 단위로 4번을 맡는다. 그래서 그 스태프(Staff)들이 마가복음을 설교하자고 하면 그 본문을 잘라서 제일 먼저 주일낮 예배설교는 담임 목사가 하고, 또 다음에는 교육 목사가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전도 목사가 하고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가 하고 또 다른 목사가 한다. 그런데 주일낮 예배에 담임 목사가 아닌 30대 젊은 목사가 지도 다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의 결

론은 언제든지 존 스타트 목사가 한다. 그런데 이와같이 30대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존 스타트 목사는 헌금 수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 그 자체가 하나의 배세지이다. 그러니까 누가 설교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배세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누가 설교를 해도 그 본문에서는 같은 설교가 나온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넓이와 깊이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배세지 핵심은 같다. 왜냐하면 그 본문은 그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팀목회(Team ministry)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교회에는 젊은 세대와 나이많은 세대가 공존하는 것을 한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 동역하는 그 정신이 얼마나 귀한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다할 수는 없을지라도 동역하는 성경공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성경공부의 방법론

지금부터는 성경공부 방법론에 대하여 적고자 한다. 나는 성경공부 방법론에 있어서 세가지가 늘 일치해야 한다고 본다.

가르치는 사람과 교재와 배우는 사람이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교재라 할지라도 배우는 사람의 처지가 다르면 그 교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시말하면 교재와 인도자와 배우는 자가 혼연일체 될 수 있는 적합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역시 Q. T. 라고 할 수 있다. Q. T. 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성경공부가 효과적인 열매를 얻게 되지만 Q. T. 를 하지 않은채 1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성경공부 하는것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Q. T. 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지만 제일 바람직한 것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성경」이다. 또 E. S. T. 에서 나오는 교재나 U. B. F. 에서 나오는 교재들이 있다. 우리 목회자에게는 데니스 레인 목사가 가르쳐준 성경 본문을 분석하는 방법이 좋다. 한 계단 힘든것이지만 특별히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본문을 분석하는 Q. T. 를 아침마

다 계속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또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Q. T. 자료집이 있다.

이런 여러가지 Q. T. 자료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된다. 규칙적으로, 조금씩, 목상을 하며, 노트를 하며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성경공부 교재는 신학이 본문강해를 하는 교재가 제일 좋다. 성경공부 후의 결과를 예상하여 그 목적에 맞는 분명한 구절을 인용하여 공부할 때 그 결과가 이루어 지도록 유도가 된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역사적 안목을 줄 수 있는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실과 교회의 연속성을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공부는 역사적 안목을 주는 것이면 좋다. 물론 귀납이나 연역이나? 소그룹이나? 개인이나? 하는것을 많이 연구 한다. 그런데 성경공부 지도자가 교사나(Teacher) 도우는 사람(Helper)이나? 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한다. 내 신학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주입시켜 주는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성경, 내가 아닌 성령이 되도록 해야한다. 즉, 내가 없더라도 바른 성경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목사중심의, 그래서 목사가 부재중이면 안되는 그런것은 곤란하다고 할수있다. 그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도 별 영향력이 없을때까지 교육을 시켜야 한다. 성경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빨리 성경을 볼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가르치도록 성경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상담을 하는 사람의 경우 내가 저 사람이(Counselor) 물어오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카운셀러(Counselor)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카운셀러 자신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그래야 자신 스스로 고민하면서 바로 자신의 해답을 가지게 될때 거기에 동의만 해준다. 그래서 확인을 시켜주면 그 사람이 그와 비슷

한 문제가 났을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 해답을 주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데 성경공부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다음, 성경공부에 있어서 지도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프로그램과 매뉴얼(Manua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흥적으로 공부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미리 충분히 공부하고, 배우고, 또 경험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가지 전후 관계를 다 생각하고 우리교회가 할 수 있는 분량의 범위를 생각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정확한 매뉴얼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적어도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의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1년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자기가 소화할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교회의 한 예를 들면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첫번째 몇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시작했다. 나는 처음에 훈련에 들어가면서 부터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득시키고 강조했다. 지금은 교회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것이다. 훈련이기 때문에 아주 지독한 훈련을 시켜도 말을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훈련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부터 9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훈련을 설득했다. 그후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고 또 직분자였던 사람들에게 적어도 훈련을 받는 동안은 직분자로서 교회일을 맡지말고 단지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도록 권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하던 사람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꼭 장로를 하고 직분자의 일은 해야 신앙생활을 하는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무리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했고 많은 경험이 있어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같이 대할것을 약속했다. 그래서 사영리부터 다시 배웠다. 그래서 제일 첫번째 코스가 사영리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아서 살았고,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었

다. 그래서 사영리가 끝난 다음에 성령 소책자를 하고나서 기본적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훈련을 시켜 나갔다. 우리는 3개월의 기초과정과 3개월의 운영과정과 3개월의 실천과정의 9개월의 과정을 해야 기본 과정이 끝난다.

이 기본훈련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3개월 동안 공부하고 로마서를 3개월 정도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실천과정에서는 일대일 양육하는 법을 훈련시킨다. 지금 우리는 6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일날에는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올려면 적어도 집에서 9시 30분쯤에 떠나야 한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5시쯤 된다. 어려운것 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거의 100%가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9개월 기본훈련을 받으면 6개월 지도자 훈련을 받고 영적은사 훈련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우리교회는 실제로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하도록 해주면서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받았던 훈련들을 간증도하고 가르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매뉴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약 2년정도의 프로그램은 거의 완벽하게 갖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금년 여름쯤에 70가정을 훈련하고 난 뒤 정식으로 문을 열것이다. 그 후에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아무나 올 수 없다. 왜냐하면 훈련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사람외에는 아무나 교회에 못오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방을 해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코스를 다 이수해야 한다. 그래서 9개월 코스가 항상 계속된다. 이 과정을 마쳐야만 우리 교회에 정식 교인이 되게 되어있다.

이것이 연예인 교회 7년, 영국에서 3년 동안에 나름대로 연구 하고 경험하고 생각한 재자화 훈련이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실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국내의 성경공부 교재 분석

이 승 장 목사
(E. S. F. 대표)

필자가 대학 3학년때 광주의 U. B. F. 라는 단체에서 사라벨 이라는 여선교사가 인도하는 성경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어린시절 가졌던 신앙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시작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먼저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 친구들,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내가 군대를 제대하던 1976년도에 서울대학 문리대 근처에서 U. B. F. 모임의 책임자로서 성경공부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때 필자는 I. F. E. S. 의 성경공부 간사이었던 에들럼이라는 하와이계 선교사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약 6개월 정도 성경공부 훈련을 받은적이 있다.

국민학교와 중학교와 또 고등학교때에 성경공부라고는 한번도 해보지 못한 한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으므로 선교사들을 통하여 처음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을때 받은 충격은 매우 큰 것이었다. 옛날에는 복음서와 같은것을 공부할 적에 그저 이전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하고 말았지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 그 속에 숨겨진 비